02□□□_01□□□ 12. 7. 19. □□ 7:30 Page 37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3호 2012.06. pp.37~61

윤석중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연구

—『고향땅』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stalgic Space in Yoon Suk-Joong's Literature Focusing on *Homeland*

노경수(한서대 겸임교수)

차 례

1. 들어가기
2. 생애
3. 『고향땅』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
1) 한국전쟁 이전의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갈 수 있는 곳
2) 한국전쟁 이후의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갈 수 없는 곳
4. 나가며

1. 들어가기

윤석중(1911~2003)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다. 그런 그는 1988년 그동안 써온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전집으로 발간하면서 제 5권을 『고향땅』으로 하여 향수에 관련된 작품들을 묶었다. 그러나 『고향땅』에 실린 작품에서의 고향은 특정한 방향과 특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특정한 방향과 공간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의 정서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집은 몽상을 지켜주고 집은 몽상하는 이를 보호해 주고 집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꿈꾸게 해준다. 우리들이 몽상을 살았던 장소들은 새로

* 본 논문은 아동청소년문학회(구두)와 서산문화발전연구소(지면)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02□□□_01□□□ 12. 7. 19. □□ 7:30 Page 38

운 몽상 가운데 스스로 복권된다. 과거의 거소들이 우리들 내부에 불멸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추억이 몽상처럼 되살아지기 때문이다. 집은 하늘의 우주와 삶의 우주들을 거치면서 인간을 붙잡아 둔다. 그것은 육체이자 영혼이며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이다.[1)]

인간에게 최초의 세계이었던 집이 있는 공간은 고향이다. 집의 확장된 개념인 고향은 일상적 진술로서 태어나고 자란 공간을 의미하지만 문학적 진술로는 삶의 과정에서 애착이 드러나는 가치들이 집약된 공간으로 원초적인 솟구침에 의해 발현되는데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마음의 고향 혹은 제 2의 고향이라고 한다.

본고는 윤석중 전집 5권 『고향땅』에 나타나는 향수의 공간에 대한 연구로서 작품에 나타나는 향수의 공간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의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윤석중의 작품 『고향땅』에 나타나는 향수의 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작품세계는 물론 내면의 시정신, 혹은 문학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텍스트로는 『고향땅』(웅진출판, 1988)로 하였고 전집(30권)과 그동안 발간한 그의 작품집을 참고하였다.

2. 생애

윤석중(1911~2003)은 서울 중구 수표동 13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위로는 일곱 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생모(趙德稀)는 천석지기 집안의 무남독녀로 여덟 번째 자녀로 윤석중을 낳은 2년 뒤 유명을 달리한다.

아버지는 무신론자로 사회운동에 몸을 바친 분으로 석중이 9살 때

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18쪽.

02□□□_01□□□ 12. 7. 19. □□ 7:30 Page 39

(1919) 재혼을 하여 수표동 집에서 새어머니[2]와 함께 살았다. 윤석중은 아버지의 재혼과 더불어 서울 중구 수은동 외가로 옮겨 외조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수표동 친가로 아버지를 만나러 다녔다. 그는 열 살이 되어서야 교동초등학교(그때는 보통학교라 불렀다)에 들어갔다.

윤석중은 1924년에 『신소년』에 「봄」이, 1925년에는 『어린이』지에 「오뚝이」가 입선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듬해인 1926년 양정고보 2학년 때 조선물산장려가(朝鮮物産奬勵歌)가 당선되어 천재의 어린이 예술가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이다.

그의 부친은 재혼한 뒤에도 사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고, 그 때마다 새어머니는 친정에 가 있었다고 한다. 무남독녀를 키워 시집보냈다가 사별한 외조모는 양자를 잘못 들여서 집 한 칸 없는 신세가 되어 마침내는 친정댁에 얹혀살게 되면서 윤석중은 혼자가 된다. 이후 윤석중은 사촌형의 뒷방신세를 지게 되면서 문학에 심취한다.[3]

1929년 양정고보 졸업반인 윤석중은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자퇴생의 수기를 쓰고 학교를 나온다.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외조모가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을 받고 귀국한다. 그는 1932년 첫 작품집 『윤석중 동요집』을 출간하고 1933년에 동시집 『잃어버린 댕기』를 출간한다.

1934년 12월 윤석중의 부친이 새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서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5년 9월 10일 윤석중은 독립 운동가이며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여운형의 주례로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 사는 박용실과 결혼을 한다. 결혼 후 그는 아버지가 이주하여 정착한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46번지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문학 활동

2) 노경자로 서천군 기산면 내동리 108번지 출생. 의사의 5남 1녀 중 외동딸로 사회주의에 앞장섰으며 차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진다. 윤석중의 부인 박용실의 증언에 의하면 새어머니는 잠업강습소를 나와 집에서도 잠실을 지어놓고 누에를 많이 쳤으며 누에치는 방법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하였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 신여성이었다고 한다.

3) 윤석중, 『노래가 없고 보면』,웅진출판, 1988, 59~85쪽. 참고.

02□□□_01□□□ 12. 7. 19. □□ 7:30 Page 40

을 한다.

당시 서산에는 윤석중이 외조모로부터 생모 몫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200석 지기 땅이 있었는데[4] 34년 부친이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그 땅에 터를 잡고 살면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를 하게 된다.

1936년 3월 9일 장녀 주화(珠華)를 낳았고 이듬해 7월 10일 장남 태원(台元)을 낳았는데 이들은 모두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46번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1939년 조선일보사에서 잡지 『소년』과 『유년』의 편집일을 맡아본다.

1939년 봄 윤석중은 당시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이 주는 계초장학금을 받고 가족과 함께 일본 도쿄의 가톨릭계 학교인 상지대학 신문학과로 유학을 떠난다.

1940년 2월 11일 일본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요구한다. 윤석중은 일본인들의 요구에 견디다 못해 정 창씨를 개명해야겠으면 '伊蘇野'로 창씨를 개명하라고 일본에서 고향집으로 편지를 낸다.[5]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원적에는 그의 말대로 1940년 1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이소야"로 창씨개명을 허가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경기도 파주로 피난을 가고 서산에 살던 부친을 비롯하여 계모와 동생을 잃는다. 그리고 적을 두었던,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산의 땅을 등지게 된다.

---

4) 서산의 땅도 외조모가 잘못들인 양자로 인하여 날아갈 뻔했던 것을 사위인 윤석중의 부친이 찾은 것이다. 윤석중의 외조모는 윤석중의 생모인 딸(趙德稀) 하나를 둔 뒤 일찍 혼자가 된다. 외조모는 딸도 일찍 잃고 사위가 재혼하자 윤석중을 맡아 키운다. 결국 외조모에게 혈육이라고는 윤석중 하나뿐이다. 사진 한 장도 없어 생모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윤석중에게 생모가 남긴 것은 서산의 땅밖에 없었다고 한다.

5) "尹가를 흔히 소라고 하는 것은 소축(丑)자에 꼬리를 달면 尹자가 되므로 놀리는 말인데, 나는 돼지띠지마는 '소'가 그다지 나쁠 것도 없어서 정 창씨를 개명해야겠으면 '이소야'로 하고 자신은 이소야 윤(伊蘇野 潤)'으로 개명하라고 집에 편지를 냈다." '이소야 윤' 하고 보면 '윤'을 '소'로 부르는 소린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부르는 그의 눈에 사람이 소로 보인 것이니 욕이 되는 것은 그쪽인 것이다.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173쪽. 원적에 의하면 그해 1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그의 창씨개명을 허가한다.

02□□□_01□□□ 12. 7. 19. □□ 7:30 Page 41

1950년 우익에 의해 사망한 부친 윤덕병[6]은 1913년 부인 조덕희와 사별 후 1919년 노경자와 재혼하여 9남매를 낳았다.[7] 그러나 원적에는 다섯 아들과 딸 하나가 올라있는데[8] 모두 일찍 죽고 가장 오래 산 동생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던 큰동생 윤이중[9](당시 20세)과 둘째동생 윤시중(당시 18세)인데 큰동생 윤이중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으로 가 행방불명되었고 둘째동생 윤시중은 국군에 징집되어 갔다가 1953년 춘천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부친 윤덕병이 한국전쟁에서 우익에 의해 죽게 된 것은 20년대 사회운동(노동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10] 이러한 사연으로 인하여 윤석중은 1950년 서산에서 부모형제를 모두 잃고 생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땅을 등지게[11] 된다.

그의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와 한두 달씩 시부모님을 모시

6) 윤덕병(1885~1950)은 조덕희와의 사이에서 윤석중을 낳고(1911) 2년 뒤 사별 후 1919년 노경자와 재혼한다. 현재 음암면 율목리에 살고 있는 음암발전추진위원장인 김낙중(윤석중의 동생 윤시중의 음암초등학교 동기동창)의 증언에 의하면 야학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윤덕병은 그곳에 와서 금일봉을 주면서 격려하곤 하였다. 그 때마다 아들 윤석중이 내려오면 방안에 앉아 글만 쓴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고 학생들에게 윤석중이 지은 시를 들려주기도 하였으며 동화책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7) 윤석중의 진술대로 그의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여 수표동 집에서 살았고 윤석중은 외가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뵈러 수표다리를 건너다녔다고 하였는데 원적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혼은 1919년이다. 그런데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46번지의 원적에는 6남매가 올라있고 큰동생이 1930년생이다. 그러니까 박용실의 증언대로 9남매를 낳았다면 그 11년 사이에 3남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는 게 된다. 앞집에 살던 이종식(전 초교 교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집은 아이가 많았다고 한다. 윤석중의 작품집 『노래동산』(1956)에는 「아이 많은 집」이 실려 있다.

8) 원적의 기록에 의하면 이복동생으로 이중(1930~행방불명), 시중(1932~1953 국군으로 징집되어갔다가 춘천 전투에서 사망), 영중(1935~1936), 여동생 화중(1936~1938), 각중(1940~한 달 만에 사망)이 있다.

9) 윤이중은 워낙이 수재여서 서산농고를 다니던 중에 윤석중이 서울의 휘문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 공부시켰다.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6 · 25가 발발하자 의용군으로 가 행방불명된다.

10) 김낙중의 증언에 의하면 부친이 서산군 인민위원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직책 또한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김낙중의 증언을 참고하면 1950년이면 윤덕병의 나이 66세가 된다. 우리 문화 정서적으로 66세는 고위직을 맡기 힘든 노령이다. 또한 윤석중이 전쟁 당시 서산으로 피난을 가려고 할 때 부친 윤덕병은 "서산은 서해바다가 뚫려있어서 공산당이 그리로 들어오면 제1선이 되어 위험하다"며 만류하였다는 박용실의 증언을 미루어보아도 그가 한국전쟁 당시 좌파고위직을 맡았다는 것은 오인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좌파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가 좌파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원적과 증언에 의하면 부친 윤덕병은 9 · 28 서울 수복 후 10월 4일 우익에 의해 서산시 예천리에서 사망하고 계모 노경자는 10월 7일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에서 사망한다. 부친이 참변을 당할 당시 윤석중은 부친의 권고로 다른 곳(파주)으로 피난 갔다가 걸어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234~235쪽. 결국 그는 아버지 참사 소식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를 2년 뒤인 1952년 10월 20일에 윤석중이 서산시 음암면에서 사망신고를 하였다.

02□□□_01□□□ 12. 7. 19. □□ 7:30 Page 42

면서 시부와 며느리 사이에, 혹은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두터운 정을 나누었고 온 가족이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에도 몇 달 동안 서산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공간 서산은 6·25로 인하여 아버지와 새어머니, 생존해 있던 두 동생까지 잃게 되면서 등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사를 가진 그는 평생을 아동문화, 아동문학에 전념하면서 "언어로 보석을 만드는 시인"[12]이라는 호평을 비롯하여 "현실에 없는 아동을 그렸다"거나 "동심천사주의"로 혹평[13]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동심을 지향하다가 2003년 12월 9일 그는 만 92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고 대전국립현충원 국가 사회 봉헌자 묘역에 묻혔다.

---

11) 윤석중은 아버지가 터전을 닦은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46번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에 땅이 많았다. 그 땅은 외할머니가 생모 몫으로 남겨둔 땅이어서 윤석중의 소유였으나 아버지께 양보하였다.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비운에 처하자 윤석중은 모든 걸 버리고 서산을 등지게 된다. 부모를 잃었는데 땅을 찾아 무엇에 쓰느냐면서 생모의 유산인 땅도 버리고 떠나 일가들이 와서 정리하여갔으나 아직도 율목리 47-1번지는 윤석중의 소유로 있어 서산시에서 찾아가라고 하였다(2007년 12월). 한편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중은 술만 마시면 서산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한다. 눈을 감을 때까지 어머니(생모)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서산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한다. 부인 박용실도 필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서산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할 때 고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목메어 하며 눈물지었다. 박용실 증언

12) "윤석중은 우리나라 언어미가 창조해 낸 생동감을 작품화하는 작업에서 성고안 시인으로 그의 동요에 전통적 생동감을 뽑아 쓰되 기본 리듬을 밝은 정서에 상관시키며 밝음은 나라 사랑의 씨앗" 유경환, 「한평생 언어로 보석을 만든 시인」, 『한국아동문학』 제21호, 한국아동문학인협회, 2004, 103~104쪽.

13) "윤석중의 樂天은 너무도 安易한 것이었다. 어린이가 生理的 本質에 있어서 樂天的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았을 뿐이지 어떠한 社會的 要請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윤석중의 樂天主義 속의 어린이는 生活現實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時間的 人間이 아니라 生理關係에 있어서만 抽象된 空間的人物 -卽, 실제 社會의 歷史的 關係에는 別로 制約을 받지 않는 天使였다. 따라서 感想과 樂天이라는 外皮를 除去하면 방정환과 윤석중은 內容에 있어서는 究竟同一한 天使主義者-所爲 純粹兒童文學主義者였다. 或者는 다 같은 天使主義래도 윤석중의 그것이 더 취할 바가 있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 意見은 그와는 正反對다. 나는 그 客觀的 結果로 보아서 方氏의 天使主義보다 尹氏의 그것이 차라리 더 좋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송완순, 「아동문학의 천사주의(부제):과거의 사적일면에 관한 비망초」, 『아동문화』 제1집, 동지사 아동원, 1948, 29~30쪽.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86쪽 재인용.

02□□□_01□□□ 12. 7. 19. □□ 7:30 Page 43

3. 『고향땅』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

1) 한국전쟁 이전의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 – 갈 수 있는 곳

윤석중의 작품에 나타난 향수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서의 한 유형으로 표출되고 있다.[14] 그런데 필자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향수의 공간이 실체적인 공간임을 밝힌 바 있다.[15] 윤석중의 『고향땅』에 나타난 그리움과 기다림의 이미지인 향수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한국전쟁 이전에 발표된 고향을 소재로 한 「길」을 비롯한 「고향땅」, 「우리집」, 「시골길」, 「우리 마을 느티나무」, 「고향길」 등에 나타난 시적화자는 고향을 언제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길은
개천을 건너뛰고 산을 돌아
어디든지 다 찾아가지요.
길아
나를 우리 시골에 좀 데려다 다아구.

—「길」[16] 전문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집.
목소리만 듣고도 난 줄 알고
얼른 나와

14) 노원호, 「윤석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86쪽.
15) 노경수, 「윤석중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58쪽.
16) 윤석중, 『고향땅』, 웅진출판, 1988, 20쪽.

02□□□_01□□□ 12. 7. 19. □□ 7:30 Page 44

문을 열어주는 우리 집.
조그만 들창으로
온 하늘이
다 내다뵈는 우리 집.

—「우리집」[17] 전문

우리 마을 느티나무/
하도 오래 되어서/
아무도 모른대요/
느티나무 나이를//
느티나무 그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쉬어갔을까.//
느티나무 가지에서/
얼마나 많은 새가/
놀다 갔을까.
우리 마을 느티나무/ 하늘 가린 푸른 우산/
해가 뜨면 해 우산/ 비가 오면 비 우산

—「우리 마을 느티나무」[18] 전문

기러기 떼 기럭기럭 처량한 소리
혼자 걷는 고향길은 멀기도 해요.
가도 가도 호젓한 옛 고향길을
둥근 달님 가만가만 따라오지만
마른 가지 바수수수 잎 지는 소리

17)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2』, 웅진출판, 1988, 11쪽.
18) 윤석중, 『고향땅』, 웅진출판, 1988, 82~83쪽.

02□□□_01□□□ 12. 7. 19. □□ 7:30 Page 45

내가 걷는 발소리도 무섭습니다.

—「고향길」[19] 전문

위의 시 「길」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있으면서 개천을 뛰어 넘고 산을 돌아 "우리 시골"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 그는 「길」과 「우리집」이 수록된 『초생달』(1946) 발간 당시 식구들이 금강산에 머물 때여서 그는 집이 없는 상황이었다.[20] 그렇다면 유학 당시 일본에서 쓴 작품일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서 쓴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일본에서 쓴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길」과 「우리집」에 나타나는 정서가 고국에 대한 향수라고 한다면 "길은 개천을 건너뛰고 산을 돌아 어디든지 가지요, 길아 나를 우리시골에 데려다 다아구"라는 진술은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리집'은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산에 머물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 서울(도시)을 금강산(시골)에서 "우리 시골"이라고 표현할까, 역시도 의문이 든다.

「길」과 「우리집」이 처음 발표된 시집 『초생달』이 발간된 1946년 봄은 해방 이듬해로서 윤석중의 부친이 처자와 함께 그가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서산)에서 후덕한 양반, 고고한 선비로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던 때였다. 부인 박용실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가족은 유학 가기 전 몇 달을 서산에서 지냈고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서산을 다녔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문화적 정서로서 '우리 시골'은 외가나 처가가 있는 시골이나 잠시 다니러간 어떤 시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가 계신 시골, 또는 큰집이 있는 시골이다.

과학화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까지 명절이면 '우리 시골' 즉, 고향을 향하여 민족이 대 이동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길」에 나타난 "우리

19) 위의 책, 13쪽.
20) 나의 제5동요집 『초생달』에 들어 있는 동요다. 그런데 나는 집이 없었다. 식구도 없었다. 금강산에 두고 온 때문이다.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웅진출판, 1988, 11쪽.

02□□□_01□□□ 12. 7. 19. □□ 7:30 Page 46

율목리 2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느티나무

시골"이나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집"도 아버지가 계신 공간이나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을 느티나무」에서 "우리 마을"이나 「길」에서 "우리"는 "우리 시골"과 같이 내가 사는 마을이거나 아버지가 사는 마을 혹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마을을 암시한다. 따라서 시에 나타나는 '우리 마을'은 생모가 물려주신 윤석중의 땅이 있는 마을, 아버지가 사는 마을, 서산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배를 타고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명천항에 내려서 음암면 율목리 "우리집"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명천항에서 40분쯤 걸어야 율목리가 나타나고 그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서 있다. 그 느티나무는 현재에도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입구에 그대로 있는데 수령 5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나이를 모른다. 다만 주민들이 그 느티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일 년에 한 번씩 서산시의 도움을 받아 성황제를 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향길」에서 화자는 현재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고향길」에서 화자가 걷고 있는 길은 "기러기떼 기럭기럭 처량한 소리"가 들리고 "가도가도 끝없는 호젓한 고향길"이며, "둥근달님 가만가만 따라오"고 "마른가지 바수수 잎 지는 길"이다.

「고향길」은 1932년 처음으로 발간한 『윤석중 동요집』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고향길」에 나타나는 시적 정서는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서울의 정서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시인이 서울길을 "고향길"

02□□□_01□□□ 12. 7. 19. □□ 7:30 Page 47

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가도가도 끝없는 호젓한 고향길"이라는 표현과 "마른가지 바수수 잎지는 길"도 서울 중구 수표동이라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희박하다. 시적 정서로 보아 「고향길」은 『윤석중 동요집』(1932)을 발간하기 이전에 그가 지주로써 서산의 땅을 관리하러 다녔음을 추측하게 한다.[21] 더욱이 "내가 걷는 발소리도 무섭습니다"는 고향길인데도 불구하고 친숙하지 않은 길임을 암시하는 개연성을 갖는다. 만약 "고향길"이 서울 중구 수표동을 일컫는다면 그 길을 "호젓한 길"이라거나 "무섭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음암면 율목리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산에 올 때 항상 밤늦게 찾아왔고 며칠 묵었다가 떠날 때는 새벽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새로이 정착하게 된 서산은 그가 외조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공간,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으나 밤길이 낯설 수 있으며 배를 타고 와서 명천항에서 내려 율목리로 들어가려면 "가도가도 끝없는 길" 먼 길을 걸어야 하고 그 길은 "나뭇잎이 바수수수 지는 길"로 "내가 걷는 발소리도 무섭게 들릴" 수 있다.

윤석중은 어려서부터 외조모의 말라붙은 젖꼭지를 만지며 자랐다고 진술한다. 일찍 혼자가 되어 외동딸마저 잃은 외조모에게 윤석중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가 서산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외조모를 대신하여 외가 소유의 땅주인으로서 서산에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향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21) 음암면에 거주하는 편세환(전 한국문협 서산지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부친은 율목리 46-1번지에 집을 지을 30년대 초 당시 마을 이장 최종구씨의 집에 머물었다고 한다.

02□□□_01□□□ 12. 7. 19. □□ 7:30 Page 48

고개 너머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 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날리며
아이들이 지금쯤 소 몰고 오겠네

—「고향땅」[22] 전문

위의 「고향땅」은 1948년에 발표되었다.[23] 1948년은 해방 3년 뒤로 부친이 계모와 동생들과 함께 서산에 살고 있을 때이고, 그는 시흥군 서면 소하리에서 서울 성북구로 이사와 살면서 다섯째 혁을 낳은 이듬해가 된다.

위의 시를 살펴보면 향수의 공간인 고향땅은 "고개 너머 또 고개"를 넘어가야 나타나는 곳이고, "저녁마다 놀지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는" 곳이고 "아이들이 휘파람 불면서 논둑길로 소를 몰고 오는" 한가로운 시골로써 「고향길」의 시적정서와 계절만 다를 뿐 환경이 닮아있다. 물론 당시의 우리나라는 어느 시골이나 「고향길」과 「고향땅」에 나타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를 살펴보면 향수의 공간으로 '노을지는 서쪽'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에 대하여 노원호는 "이제 마음의 고향은 그의 심상에서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저녁마다 놀지고 아이들이 소 모는 평온한 시골의 전원, 그곳이 마음의 고향이다. 어쩌면 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런 마음의 고향도 그리움과 기다림의 이미지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4]고 하였다.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시인이 「고향길」과 마찬가지로 「고향땅」에 나타

22) 윤석중, 앞의 책, 14쪽.
23) 윤석중, 『여든 살 먹은 아이』, 웅진출판, 1990, 84쪽.
24) 노원호, 「윤석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91~92쪽.

02□□□_01□□□ 12. 7. 19. □□ 7:30 Page 49

나는 향수의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노원호의 논문에서처럼 윤석중이 마음의 고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이라고 설정하였는데 그곳은 당시 그의 부친이 일가를 이루며 정착하여 살고 있던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일 개연성이 강하다.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 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 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어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길을
훨훨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 오네요
기러기들이 살러 가는 곳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기러기」[25] 전문

서울 사는 아이야/시골 왜 왔니?
시골 바람 맑은 바람/쐬고 싶어 왔단다.
서울 사는 아이야. 시골 왜 왔니?
퐁퐁 솟는 맑은 샘물/먹고 싶어 왔단다.
서울 사는 아이야/시골 왜 왔니?
맑은 물에 노는 고기/보고 싶어 왔단다.
서울 사는 아이야/시골 왜 왔니?
산새 들새 노랫소리/듣고 싶어 왔단다.

—「서울 사는 아이야」[26] 전문

25) 방응모, 《유년》, 조선일보, 1936.;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168쪽 재인용.
26) 위의 책, 42쪽.

02□□□_01□□□ 12. 7. 19. □□ 7:30 Page 50

가도 가도 끝없는/시골 길가에
아기는 혼자 서서/무엇을 하나
나물 밭에 곱게 핀/노란 쑥갓꽃
하나 둘 헤며가다/수를 잊었나
엄마가 기다리는/우리 집까지
깡충깡충 뛰어서/얼른 가려고
길 위에 그려보는/토기 그림자

—「시골길」[27] 전문

시골 사는 아이들은/몇 갑절 저보다 큰/나뭇짐도 잘 지고
시골 사는 아이들은/몇 갑절 저보다 큰/나룻배도 잘 젓고
시골 사는 아이들은/몇 갑절 저보다 큰/소도 말도 잘 끌고

—「시골 사는 아이」[28] 전문

위의 작품 「기러기」, 「서울 사는 아이야」, 「시골길」이나 「시골 사는 아이」에 나타나는 자연환경은 우리나라 어느 시골도 비슷한 공간이지만 작품이 작가의 체험의 산물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그리고 그의 부친이 살고 있던 서산시 음암면이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들의 이동경로인 점을 미루어 보면 시골 중에서도 그의 생모가 물려주신 땅, 부친이 일가를 이루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곳,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곳, 서산일 개연성이 강하다.

"부모도, 형제도, 집도 없이 자란 나는 다리를 상한 제비보다도 마음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고마우신 홍부님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도 젖먹이 석중을 길러내신 외조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가난한, 그러

27) 위의 책, 46쪽.
28) 위의 책, 48쪽.

02□□□_01□□□ 12. 7. 19. □□ 7:30 Page 51

나 말할 수 없이 착한 나의 고향은 흥부님 고향인지도 모릅니다. 제비는 흥부네 집에 박씨를 물어다가 선사했습니다. 나도 많은 신세를 진 내 고향에 맨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동요집 『어깨동무』는 나의 고향에 바치는 조그만 선물입니다."

— 1940년 첫여름 '도꾜 · 반쬬' 에서

고향은 물론 고국을 뜻하는 것이었다.[29]

위의 글을 요약하면 "다리를 상한 제비보다도 마음이 서러웠던 윤석중에게 외조모님은 고마우신 흥부님이었다, 가난한,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착한 나의 고향은 흥부님의 고향인지도 모른다, 많은 신세를 진 내 고향에 맨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동요집 『어깨동무』는 나의 고향에 바치는 조그만 선물이다."가 된다.

위의 글은 일본에서 『어깨동무』(1940)를 발간하면서 쓴 서문인데 1985년 발간한 『어린이와 한평생』에 소개하면서 그 머리말에서 "고향은 물론 고국을 뜻하는 것이었다"[30]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의 글을 잘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1940년 『어깨동무』서문에서 말한 "고향"이 1985년 발간한 『어린이와 한평생』에서처럼 "고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착한 나의 고향은 흥부님의 고향인지도 모릅니다"라는 진술이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당시 고국을 떠나 있는 시인이 고국이라고 하면 외조모님이 계신 곳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도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가난한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착한 나의 고향은 흥부님의 고향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나의 고향과 흥부님의 고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29)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176쪽.
30) 위의 책.

02□□□_01□□□ 12. 7. 19. □□ 7:30 Page 52

그의 외조모님은 양자로 들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해 친정살이를 한다고 하였다.[31] 따라서 40년에 말한 "가난한,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착한 나의 고향"이 외조모가 친정살이하는 공간일 개연성은 희박하다. 결국 45년 뒤의 진술 "고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왜 윤석중은 『어깨동무』의 서문에서 밝힌 "고향"을 1985년에 발간한 『어린이와 한평생』에서 "고국"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글을 썼던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흥부님의 고향인지도 모르는 나의 고향'을 말하려면 그동안 침묵하였던 서산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말해야만 한다. 그것은 "고향"과 "고국" 사이에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윤석중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며 또한 당대 우리나라의 지배이념이었던 반공주의와도 상충된다. 따라서 그는 작품에 나타나는 향수의 공간이 실체적 공간인 서산과 관계되는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한국전쟁 이후의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 – 갈 수 없는 곳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고 하였다. 시는 허구의 세계이고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허구의 기록이 사실의 기록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허구의 세계에서 진실을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허구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보다 더 진실된 것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속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고향땅』에 나타나는 향수에 관련된 작품들 중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발표된 「고향」, 「고향하늘」, 「그리운 내 고향」, 「내 방패연」에 나

31) 내가 자란 외할머니 댁은 나날이 형세가 기울어져 들어갔다.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집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늙으신 몸을 이끌고 장사동 친정댁에 얹혀사시게 되었다. 외할머니 친정댁은 큰아들이 바람을 피워 그 집마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양자를 잘못 두어 집 한 칸 없이 되신 외할머니는 오나가나 바늘방석에 앉으신 거나 다름없었다. 윤석중, 『노래가 없고 보면』, 웅진출판, 1988, 59쪽.

02□□□_01□□□ 12. 7. 19. □□ 7:30 Page 53

타난 향수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지 않을 곳 혹은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집 꽃밭 봉숭아랑 채송화랑 저녁때 피는 분꽃들
인제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꽃밭에 물을 주기도.
오래오래 피거라 우리 떠난 뒤라도 전이나 다름없이
잘 있거라 꽃들아 잘 있거라 꽃들아 너를 두고 떠난다.

동네 아가씨 사이좋게 아침저녁 물들을 긷는 옹달샘
인제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샘물을 받아먹기도
마르지를 말아라 우리 떠난 뒤라도 전이나 다름없이
잘 있거라 샘물아 잘 있거라 샘물아 너를 두고 떠난다.

어둔 밤에도 등불 없이 마을 사람이 잘들 다닌 논둑길
인제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논둑길 걸어가기도
무럭무럭 크거라 논과 밭에 곡식이 전이나 다름없이
잘 있거라 고향아 잘 있거라 고향아 너를 두고 떠난다.

—「잘 있거라 고향아」[32] 전문

위의 시「잘 있거라 고향아」한국전쟁 이후인 1952년 9월에 창작되어 1956년 발간한『노래동산』에 발표되었다. 시에 나타나는 고향에는 봉숭아 채송화 분꽃이 피는 꽃밭이 있고 동네 아가씨들이 있으며 옹달샘이 있다. 그리고 어둔 밤에 등불 없이 다니던 논둑길이 있다. 논과 밭에는 자라는 곡식들이 있다.

이러한 농촌의 자연환경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 중구 수표동이나

32) 위의 책, 92쪽.

02□□□_01□□□ 12. 7. 19. □□ 7:30 Page 54

수은동이 아니다. 그렇다고 선행 연구자들의 말처럼 보편적인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세하게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잘 있거라 고향아」의 화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구체성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인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꽃밭과 옹달샘, 등불 없이 다니던 논둑길에 이별을 고한다. 마치 다시는 안 올 사람처럼 인사를 한다.

이 작품이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피난으로 고향을 등지면서 쓴 것이라면 이렇게 작별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난'은 말 그대로 난리를 피해서 잠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에 나타난 것처럼 작별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화자의 진술은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음을 예견하게 한다.

저 멀리 바라뵈는 내 고향 하늘
이따금 붉은 놀이 덮이는 하늘
떼지어 날아가는 왜가리들아
단풍졌나 불났나 보고 오너라.

—「고향하늘」[33] 전문

우리 고향 생각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네.
지금도 시시로 그리운 내 고향
어머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신 고마운 곳.
지금도 시시로
그리운 내고향.
가고파라 우리고향 훨훨 날아 보고파라.
시시때때 가고픈

33) 윤석중, 『고향땅』, 웅진출판, 1988, 16쪽.

02□□□_01□□□ 12. 7. 19. □□ 7:30 Page 55

우리 고향
시시때때 보고픈 고향 산천.

—「그리운 내 고향」[34] 전문

위의 시들을 살펴보면 고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한국전쟁 이후 발간한 『노래동산』(1956)에 발표되었다. 위의 시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은 「잘있거라 고향아」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고향하늘」에서 화자는 왜가리들을 보고 붉은 놀이 덮이는 고향하늘에 "단풍졌나, 불났나 보고오라"고 한다. 즉 떠난 고향에 대한 안부를 철새에게 묻는데 그곳은 '붉은 놀이 덮이는 곳'으로 서쪽임을 암시한다.

「그리운 내 고향」의 화자는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면서 "시시때때 가고픈", "시시때때 보고"파서 "새가 되어 훨훨 날아 가고 싶다"고 한다. 이 시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머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신 고마운 곳"인데 갈 수 없음을 암시한다.[35]

그런데 작품발표 당시 윤석중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화자가 말하는 향수의 공간이 서울일 개연성은 희박하다. 물론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 3·8선으로 인하여 갈 수 없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 시인의 체험에 의한 내적 정서의 표출임을 감안한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시인이 "시시때때로 가고 싶은 곳"은 아버지와 함께 하던 공간, 어머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 공간이라는 개연성을 획득한다.

어머니!
이번 싸움에 우리 고향이

34) 위의 책, 19쪽.
35) 부인 박용실은 필자가 예총회장과 문협서산지부장과 함께 찾아갔을 때 "서산이 우리 시부님을 죽여 놓고 이제와서 왜 현창사업을 한다고 하느냐"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서산에 살고 있는 서산 향토연구회장 이은우의 진술에 의하면 박용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윤석중의 부친 윤덕병은 실제로 고고한 선비로 인품이 후덕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며 살았고 자주 드나들며 장기를 두던 친구의 집에서도 좌파 성향을 나타내는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02□□□_01□□□ 12. 7. 19. □□ 7:30 Page 56

죄 부서졌다는데
이제 우리는
고향이 없지요?

물에서만 사는 물새들도
고향이 있는데
우리라고 고향이 없겠니
땅덩이만 남더라도
고향은 고향이지

—「고향」[36] 전문

"여기 실린 예순 세 편은 단기 4285년(서기 1952년) 9월 한 달 동안에 지은 노래들이다. 내 노래에 풍년이 들게 한, 조국의 하늘아, 땅아, 해야, 달아, 별아, 비야, 눈아, 바람아, 산아, 물아, 새야, 꽃아,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아, 고맙다."[37]

윤석중은 위의 시들을 비롯하여 『노래동산』(1956)에 실린 예순세 편의 시를 1952년 9월 한 달 동안에 쓴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원적에 의하면 그는 1952년 10월 18일 서산군 음암면에 부친과 계모의 사망신고를 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서산시가 무연고 땅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윤석중에게 음암면 율목리 147-1 번지의 땅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보낸 바 있다. 그러니까 그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서산을 떠났지만 땅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시는 노원호의 주장처럼 "아내의 고향인 충청도 진잠으로 피란을 가서 잃어버린 서울을 걱정하고 있는 것"[38]이라기보다는 윤석중이 부친과 형제들이 살던 서산을 정리하고 쓴,

36) 윤석중, 『노래동산』, 학문사, 1956, 66~67쪽.
37) 윤석중, 『노래동산』, 학문사, 1956, 서문.

02□□□_01□□□ 12. 7. 19. □□ 7:30 Page 57

서산을 등지고 떠난 뒤 쓴 시라는 개연성이 강하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탐구가 과학이라면 문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소중한 내적 가치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중이 작품에서 말하는 향수의 공간인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서의 고향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진술로써 애착이 담긴, 소중한 가치들이 집약된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부모형제를 잃고 생모에게서 물려받은 땅까지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서산은 초기 아픔의 공간으로써 등지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픔의 공간은 기다림과 그리움 공간으로, 향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작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의 윤석중 시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은 실체적 공간으로써 "저녁마다 노을 지는 곳"이며 "고개 넘어 또 고개를 넘어야만 하는 곳"이고 "가도가도 끝없는 길"을 지나야 하는 곳 그리고 논둑길이 있고 우물이 있고 아이들이 소 몰고 다니는 공간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중 개별 체험에 의한 문학정신은 페르조나[39]가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탄과 함께 '동심천사주의'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탈 역사적인, 탈 이념적인 보편지향,

38) 노원호, 「윤석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90쪽.

39) '페르조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탈춤에서 노인의 탈을 쓰면 노인의 역할을 하고 왕의 탈을 쓰면 왕의 역할을 하듯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개의 탈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다. '페르조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다. 그것은 흔히 개성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가면이다. '페르조나'는 내가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Selbst, self와는 다른 것이다. '페르조나'에 입각한 태도는 주위의 일반적 기대에 맞추어 주는 태도이며 외계와의 적응에서 편의상 생긴 기능 콤플렉스(Funktionskomplex)이다. 이부영, 『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8, 82쪽.

02□□□_01□□□ 12. 7. 19. □□ 7:30 Page 58

동심지향으로 일관하였다. 그는 이념(理念)이나 인위(人爲)로 변화되지 않은 자유와 순수의 상징인 아이들에게서 인간의 원형을 찾고 형상화하는 시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정신, 문학정신이 지향하는 동심[40] 이야말로 상실과 결핍의 환경에서 자란, 이념의 대립으로 부모 형제를 잃은 그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을 소재로 한 윤석중의 작품을 두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실체적 공간이 아닌 "보편적 고향" 혹은 "마음의 고향"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저녁놀이 지는 공간, 논둑길이 있는 공간, 아이들이 소를 모는 공간으로 실체적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은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고, 아버지가 살았던 서산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윤석중의 고향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진술로는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한 서울이지만 문학적 진술로는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은 생모가 물려준 공간, 부친이 동생들과 터를 잡고 살아가던 공간 서산임을 향수와 관련된 그의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국 서산은 서울에 살던 그에게 향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를 지배하였던 유교적 이념은 아버지가 부인을 몇 들여도 그들은 모두 어머니로 섬겼다. 윤석중이 9살 때 부친과 부부의 연을 맺은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17년 차이가 나고 윤석중과는 9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 '어머니'라고 부르기 어려웠을지라도 30년 넘게 부친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아홉이나 낳았으니 당연히 어머니였고 그들이 함께 하던 공간은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공간으로 윤석중의 의식에는 애착과 소중한 가치들이 집약된 공간으로써의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40) "동심이란 인간의 본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물이나 목석하고도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곧 동심입니다." 윤석중,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85, 268쪽

02□□□_01□□□ 12. 7. 19. □□ 7:30 Page 59

참고문헌

가스통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노경수, 「윤석중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노원호, 「윤석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신현득, 「한국 동시사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윤석중, 『노래동산』, 학문사, 1956.

_____, 『어린이와 한평생』, 범양사출판부, 1995.

_____, 『여든 살 먹은 아이』, 웅진출판, 1990.

_____, 『전집 1~30권』, 웅진출판, 1988.

이부영, 『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9.

조대현, 『한국아동문학』 21호, 한국아동문학인협회, 2004,

02□□□_01□□□ 12. 7. 19. □□ 7:30 Page 60

A Study on Nostalgic Space in Yoon Suk-Joong's Literature

—Focusing on 『Homeland

Roh, Kyeong Soo

Yoon, Suk-Joong(1911-2003) was born in Supyo-dong 13, Jung-gu, Seoul, Korea. He began his literary world, being accepted for《New Boy》 in 1924 and《Children》 1925. He published his complete works of thirty volumes from Woong-jin publishing company 1988 and collected 5 volumes as a series of『Homeland』. This dissertation focu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stalgic space in『Homeland』 and Supyo-dong where he was born and grown up.

Yoon, Suk-joong's father lived with his step-mother, doing virtue to neighbors in Yulmok-ri, Eumam-myeon, Seosan-city, but drawn into the Korean War and passed away. Yoon's family became victims of the war and he turned his back on Seosan.

Yoon's works in Vol.5『Homeland』entered upon a new phase since the Korean War. Hometown on his former works such as「Road」,「A zelkova in our town」,「Homeway」「A child living in a country」,「Homeland」,「Geese」 means allowed space whenever you want to go. In contrast, hometown in latter works suck as「Goodbye, my

02□□□_01□□□ 12. 7. 19. □□ 7:30 Page 61

hometown」, 「Homesky」, 「Missing Hometown」, 「Hometown」means space not allowed to go. Also, commonly set up-nostalgic space is the object of yearning and the place with sunset, a pass beyond a pass, a well and ridgeway and children driving cows.

Hometown is just a birthplace as a common statement. However, it can be a intensive place full of precious values in a literary aspect. Past studies regarded hometown as a common place or home town baring in mind, but it actually has country mood rather urban mood like Seoul. Though countryside looks similar, taking the truth that a work come out from writer's experience into consideration, the nostalgic space in

『Homeland』 is Yulmok-ri, Eumam-myeon, Seosan-city, the place where his father lived and precious values left by mom existed.

주제어 : 고향(hometown), 향수의 공간(nostalgic space), 그리움(yearning), 한국전쟁(Korean War), 서산(Seosan)

논문 접수일 2012. 05. 04.
논문 심사일 2012. 05. 25.
게재 확정일 2012. 06. 08.